

‘00’0 ‘0000’0 0000 0000 00 0

‘00’0 ‘0000’0 0000 0000 00 0

0000(00000000 00)

20200 0000 00000 0000 000019000 0000 0000 00000 0000 00 0000 0000 0000. 00 0 00 0000 0000, 0000000 000000, 00 0000 00, 0000 0000 0 0 00000 0000 0000 00 0000 000000 00000, 100 00 0000 0000 00 0000 00 0000 0000000.

00000 00 0000 0000·00000 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0000, 00 0000 00 0000 00 00 0000 00000 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 0000 0000. 0000 00 019 0000 00 0000 0000 0000000, 0000000 0000 0000 00 0000 00 00. 0 0000000 0000 00 0000 00000 00000 00 0000 00 0000 0000000 00000, 0000 000000 0000000 00 00000, 0000 0000 0000000 00.

20200 000019 00 000000 0000000000 00 0000000 0000000. 00 0000 0000 00 0 00000 0000 00 0000 00 0000 00 0000 0 00 0000000 0000000 00 0000 00 00 00000 00 00000 0000 00 00000 0000 0000 ‘0000 00 00 0000 0000 0 0 0000?’0 0000 0 0000 00000 00000 00. ‘0000000 0000 00. 00 0000000 0000 00.’0 0000000.



0000000000 00·0000 00 0000 <2020 00000 00000: 00000 0000> 00 00 (00: 000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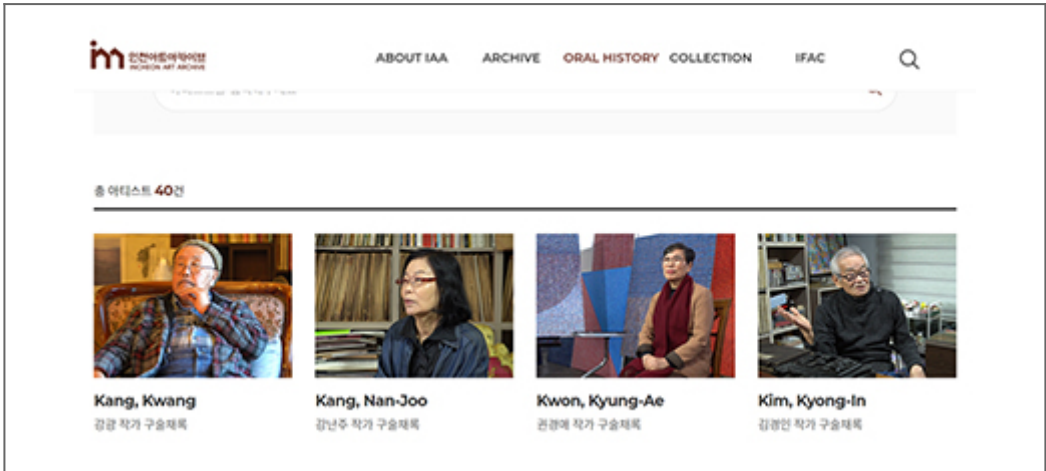
0000 00 00 0 0000 0 0000 00000, 00000 0000 0000 00 00 0000 0000 00 0000 ‘0000 0000’, ‘00001900 00 0000’, ‘0000 00 00’, ‘0000000 00000 00’ 0 0000 00000 0000. 0000 0 00000 0000 000000000 0000 0000 0000 00000 000000 0000 00 00. 0000 0000000000 00 0000 00 0000. 20200 0000 00 00000 0000 0000 00000 00 000000000 0000 00000 0000 00 0000 000000 0000, 000000000000 <0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한국 문학의 전통, 현대화, 그리고 디지털화

한국 문학의 전통, 현대화, 그리고 디지털화

김(김영애, 김경인)

한국 문학의 전통, 현대화, 그리고 디지털화. 이 글은 한국 문학의 전통, 현대화, 그리고 디지털화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 문학의 전통은 고대 문학, 중세 문학, 근대 문학, 현대 문학, 포스트모던 문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 문학의 현대화는 서구 문학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디지털화는 문학의 생산, 유통, 소비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한국 문학의 전통, 현대화, 그리고 디지털화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한국 문학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 문학의 전통, 현대화, 그리고 디지털화는 한국 문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 문학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한국 문학의 전통, 현대화, 그리고 디지털화는 한국 문학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 문학의 전통, 현대화, 그리고 디지털화는 한국 문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 문학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한국 문학의 전통, 현대화, 그리고 디지털화 (<http://www.inartarchive.kr>)

한국 문학의 전통, 현대화, 그리고 디지털화. 이 글은 한국 문학의 전통, 현대화, 그리고 디지털화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 문학의 전통은 고대 문학, 중세 문학, 근대 문학, 현대 문학, 포스트모던 문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 문학의 현대화는 서구 문학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디지털화는 문학의 생산, 유통, 소비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한국 문학의 전통, 현대화, 그리고 디지털화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한국 문학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 문학의 전통, 현대화, 그리고 디지털화는 한국 문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 문학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한국 문학의 전통, 현대화, 그리고 디지털화는 한국 문학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 문학의 전통, 현대화, 그리고 디지털화는 한국 문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 문학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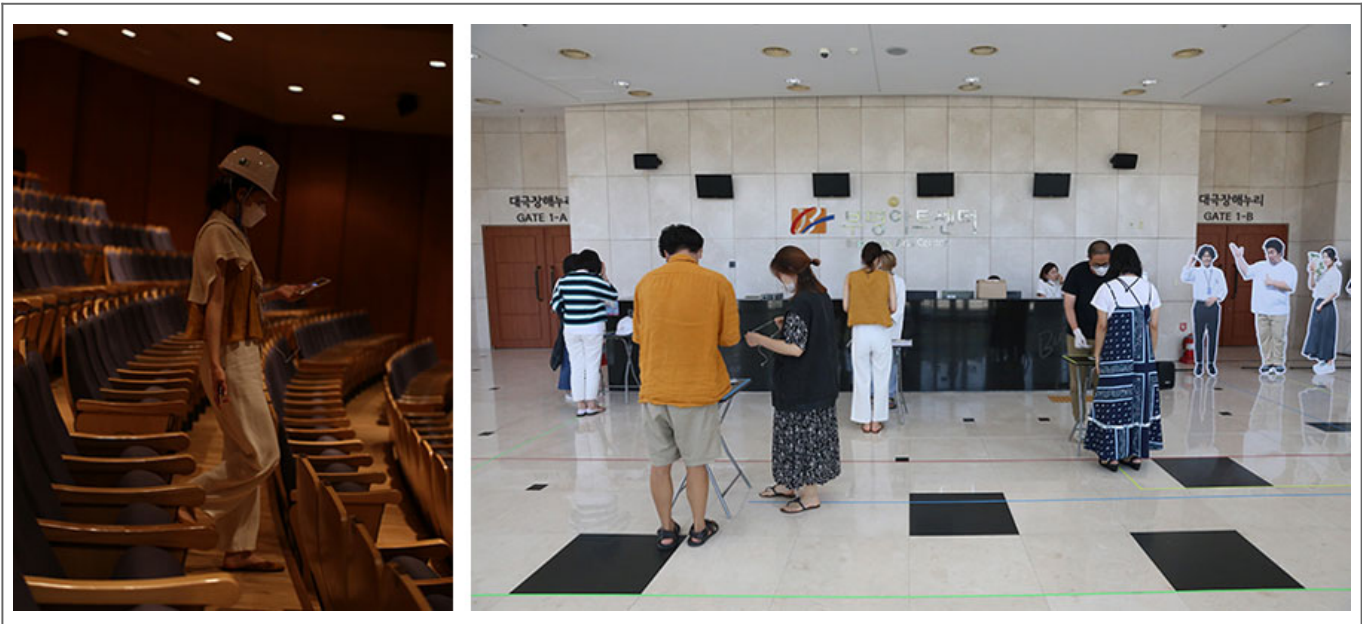
□□□□ □□ □□□□ □□.

□□□□□□□□ □□19 □□ □□ □□□□ □□ □□□□ □□□□ □□□□ □□. 2020□□ □□□□□□ □□ □ 10□□□□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2□□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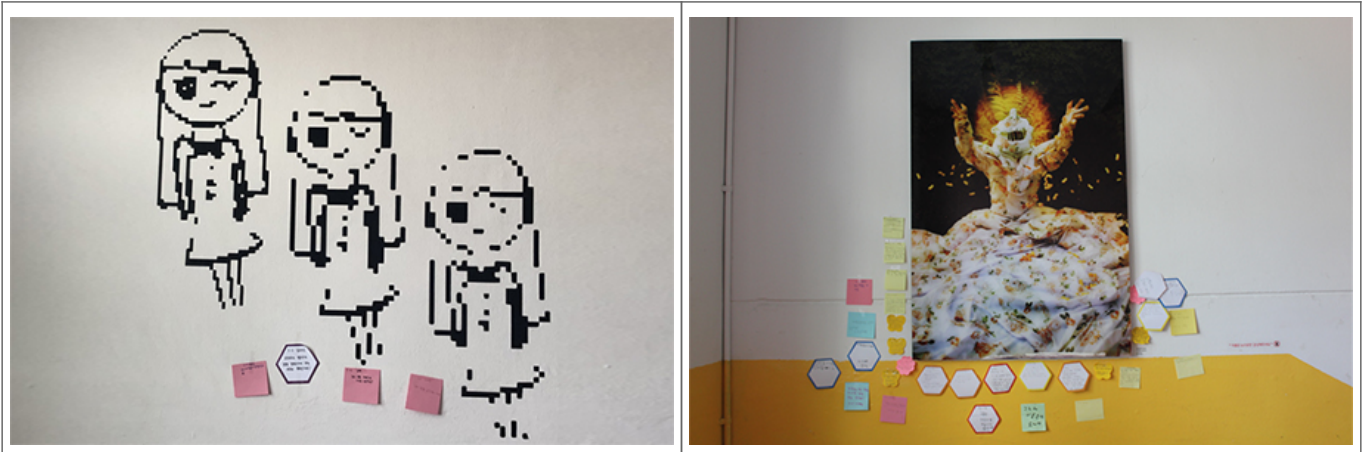
□□□□□□ □□ 10□□ □□ □□□□ □□ <□□□□ □□□□> (□□□□□□, □□□□□□□□ □□, 2020.9.4.~9.6.) □□□□

□ □□ □□□ □□□ <□□□□ □□□□>□□ □□□□. □□ □□□□□□ 2020□ □□□□□□□□ □□ 10□□ □ □□□ □□□. □□ □□□□□□□□□ □□□□□□ □□ □□□□ □□ □□□□ □□ □□□□ (immersive) □□□□ □□□□□□. □□□□□ □□□□ □□□ □□□□□□, □□□□19□ □□ □□□ □□□□ □□□□ □□□□ □□□□ □□□□ □□□□ □□ □□ □□□□ □□□ □□□□ □□□□□□□□. 2020□ □□□ □□□□ □□□□ □□□□ □□ 10□□ □ □□□□□□ □□□ □□□□ □□□□ □□ □□□□ <□□□□ □□□□>□ □□□□ □□□□ □□□□ □□□□.



이 프로젝트, 특히 이 프로젝트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의 과정이다.

특히 '프로젝트'의 과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이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며, 팀워크를 강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기여한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일종의 작업이 아니라, 우리의 창의력과 역량을 시험하는 기회이며, 또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이다.



김민준&김민준,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것들>(김민준, 2021)(출처: 김민준의 블로그)

이 프로젝트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에서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며, 팀워크를 강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일종의 작업이 아니라, 우리의 창의력과 역량을 시험하는 기회이며, 또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며, 우리는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며, 우리는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의 과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이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며, 팀워크를 강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기여한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일종의 작업이 아니라, 우리의 창의력과 역량을 시험하는 기회이며, 또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이다.



이영민&김민준, <learning Machine>(김민준, 2021)(장르: 다큐멘터리)

이영민과 김민준은 2019년 19살의 나이로 **learning Machine**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이영민은 'learning Machine'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김민준은 이영민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이영민은 'learning Machine'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김민준은 이영민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이영민은 'learning Machine'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김민준은 이영민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이영민(김민준, Kim Eunju)

00000 000000. 0000000 0000 0000(0000 00000 000 00). 0000000 00
00 00 00 0. 00000000 0000: 0000 0000000 00 000. 00 000000000000 00.

‘0.0.0’ 00 000 00000000 00000

‘0.0.0’ 00 000 0000000 0000

000(0000000)

‘00 000 0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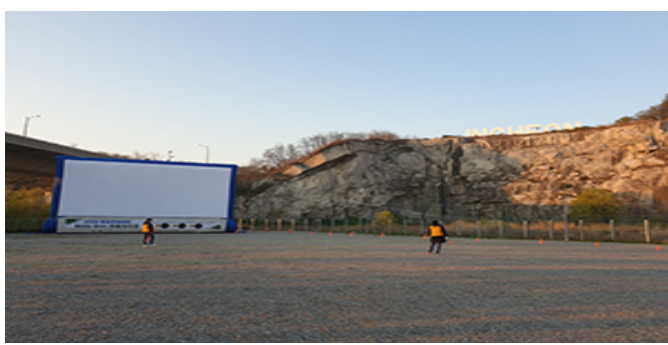
0000 00 000 0000000 00000, 000, 00000 0000 0000 000 0000 000. 0
00 00 000 000 00 00, 0000 000 00000 00 00 000 00000 000 000 00
000. 00 00 000 0 000 0 000? 0000 0 000? ‘000000 00 000’ 0000000
000 000 0 0000000.

00 0000 000 000 000 0000 00000 00 0000, 00 00 000 000 000 000
00 00 0000. 00 00 00 00 0 0000 00000 000. 00 00000 0000 ‘00’00
00000 00 00000 00 000 00 00000 00000. 00 00 0 000. 00 00000 000000 0
00 0 000. 00 000 00 00, 000000 00 00, 00 00 00. 000 3000 00 000
00. 00 00 00 0 000. 00000 00 000 0000, 000000 00 0000000 000 0000
0000 0000 00 00 0 000, 000000 0000 00 000 000. 00 000 000000 000 00
00.

00 0000000 00000000 00, 00000, 00000, 00 0 000 00 00. 00 000000 00
0000 00000 00 00/00000 00000 0000 00000 0000 0000 000, 0 00 000 00000 0
000, 00000 0000 00000 0000000. 000000000 00 000 00 000000 00 00000 000
0 0000 00 00. 0000 0 0000 0000. 0000 0000 00000000 00000 00 00 00 00 00
0. 00000 00000 0000 00 0000 00 00 000000 00 0 00 0000. 00000 0000 0000
00 00000 00 00 0000. 0000 “0000000 0 0000 000000.”0 00000 00 00 0000 00
00 0000 00.

00 000 000000 000000000 00 00 000 0000 00, 00000 00 00 00000 0000 000
00 0000 00 0000 0000. 00 00 000000 00 00000 0000 0000. 0000000 0000 00000
000000 ‘0000’0 00000 00000 0000000 00 0000 0000 ‘000000000000’0 0000 0000

2020년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 'With You!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캠페인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시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캠페인 기간 동안 캠퍼스 곳곳에 'With You!' 배너를 설치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도록 했다.



With You! 캠페인(서울대 캠퍼스, 2020.4.25.~27.)



2020 #WithYou! 캠페인(서울대 캠퍼스, 2020.8.8.)

캠페인 기간 동안 캠퍼스 곳곳에 'With You!' 배너를 설치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도록 했다. <With You! 캠페인>, <#WithYou! 캠페인> 이 캠페인 기간 동안 캠퍼스 곳곳에 'With You!' 배너를 설치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도록 했다.

캠페인 기간 동안 캠퍼스 곳곳에 'With You!' 배너를 설치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도록 했다. 캠페인 기간 동안 캠퍼스 곳곳에 'With You!' 배너를 설치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도록 했다.

캠페인 기간 동안 캠퍼스 곳곳에 'With You!' 배너를 설치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도록 했다. 캠페인 기간 동안 캠퍼스 곳곳에 'With You!' 배너를 설치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도록 했다.

캠페인 기간 동안 캠퍼스 곳곳에 'With You!' 배너를 설치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도록 했다. 캠페인 기간 동안 캠퍼스 곳곳에 'With You!' 배너를 설치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도록 했다.



김지수 (Kim Jis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 00000000 000000 <00000>, 0000 000 00(00: 00000000)

0 0 0000 000 0000 000 00. 000000 000 000000 0000 0000 00 00 0000 00, 00 000, 00 0000 0000 00 000 0000 000 0000 00. 00 0000 0000 000000 000 000 00 000000 '0000 00 00'00 0000 0000 0000 0 00 000 00 0.

000 000 00 0000000000 '00 0 000000 000 000 00'00 0000 000 0 00, 000000 000 000 0000 000 00 0000. 0000000 00 0000 00, 00000 000 00 0 000 00 00 00 00 00 000 00 000 00 000 000 000 00 000 0000. 0 00 0000, 0 00 00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 0 0000 000000 00000. 00 000 0000 0000, 000000 00000 00000 00 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 00 00000 0000 00 00000 00 0000 00 00 0000 00 00 0000 0000. 0000 00, 00000 0000 0 00 0000 00000 0000 00000 0 00000 00. '00 0000 00000 00000, 0 0000 00000 00 0000.'00 00 0000 0000 00000 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0 0000 00 0 0000, 0 0 00000 0000 00000 00000.

□□□ : □□□□□□□□ □□□□ □□□□ “□□□□
□”